

한국의 계명대학교에서 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로 유학을 온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년간의 유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오차대에서 유학할수록 짧게 느껴지는 반년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유학생 수업을 수강했는데, 그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일본사정연습 3A'입니다.

원래 저는 일본에 취직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취직 사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의 취직에 대해 여러가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전 유학생 선배들의 경험이나, 일본에서의 취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직하는것에 관심이있거나, 일본의 취업상황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의 국제교육센터에서의 기모노교실과 유카타교실에 참여해 일본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나라의 전통의상에 관심이 있었기때문에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렌탈샵에 가면 직원분들이 모두 입혀주시기 때문에 입는법은 잘 몰랐지만, 기모노교실과 유카타교실에서는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입는 순서와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손으로 직접 입어봐서 재미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요코하마, 나고야, 사이타마, 디즈니씨, 홋카이도 등에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골든위크에는 교통비가 제법 비싸서 고민했었지만, 기회가 있을때 여러지역을 많이 여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여행을 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유학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지는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한국의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때문에 한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일본의 벚꽃과 마츠리도 구경하고 불꽃축제도 여러번 보러가서 일본의 분위기를 한껏 즐길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도 많고 더워서 힘들었지만 다시생각해보면 정말 좋았던 기억입니다. 대학생활동 한번은 꼭 교환유학을 해보고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오게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해외에서 살아본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교환유학생활동은 정말 인생에서 잊을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교환학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교수인 모리야마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항상 돌아보고 시트를 읽고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잘 생활하고 수업을 들을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안전한 생활을 도와주신 오토와칸의 관리인분들도 감사했습니다.

오차대는 이케부쿠로까지 두정거장정도이며, 환승을 해야하긴하지만 주요한 변화가 (신주쿠,시부야) 등도 3~40 분이내로 갈수있습니다.

묘가다니역에서 한정거장을 가면 도쿄돔이 있는 고라쿠엔도 있습니다.

위치도 아주 좋고, 기숙사의 방이 작긴하지만 신축이라 깨끗하고 관리가 매우 잘되고 있기때문에 추천드립니다.

